

보도 시점 2026. 7. 23.(목) 10:00
(2026. 7. 23.(목) 석간)

배포 2026. 7. 22.(수) 14:00

류제명 제2차관,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포용적 AI 전환’ 비전 제시

- 피지컬 AI를 통한 산업·사회 전반의 AI 전환 방향 제시
- ‘AI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디지털 연결성 강화 제안
- ‘APEC AI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AI 허브’를 통한 포용적 AI 생태계 조성 강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류제명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7월 23일(현지시간)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26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경제체의 디지털·AI 분야 장관급 대표들이 참석해 디지털·AI 기술을 통한 경제성장,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디지털 연결성 확대, 디지털 포용과 역량 강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등을 논의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디지털·AI 기술의 혁신과 활용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담은 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디지털·AI 기술과 경제성장’ 세션에서 AI가 산업 전반의 생산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생산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AI가 학습하고 연산하며 현실 세계에서 제조·농업·물류·모빌리티·돌봄 등과 결합해 실질적인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한국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현장 데이터와 AI·핵심기술을 결합한 피지컬 AI의 실증과 확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 AI 전환의 전 주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공유했다.

이어 류제명 제2차관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채택을 주도한 ‘APEC AI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AI가 경제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 혜택이 보다 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역내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기구·개발은행·민간 부문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허브’ 구축 구상을 소개하며, 파트너 국가의 AI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AI가 소수의 특권이 아닌 포용적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디지털 연결성’ 세션에서는 AI가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역량·데이터·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디지털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한국의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전략인 ‘AI 고속도로’와 이를 뒷받침하는 ‘Hyper AI Network’를 소개하며, 첨단 GPU 확충, 국가 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분야별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6G·AI-RAN 등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AI 시대의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케이블 기반 초고속망 확충 등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적 연결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소개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AI의 잠재력을 현실의 생산성과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피지컬 AI와 이를 뒷받침하는 컴퓨팅·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며, AI의 포용적 확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AI 혁신과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경험을 APEC 회원경제체와 공유하고, APEC AI 이니셔티브 이행과 역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디지털 연결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책임자	과장	허은영	(044-202-436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혜	(044-202-4363)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